

典型的인 樣式으로 鼻梁이 우뚝하고 口唇은 조고마한 모습으로 推測된다. 兩頰은 突出的 便으로 大邱調查 金銅如來立像①의 顔面과 恰似하니 當時의 佛像으로서는 特異한 表現이다. 脛部에는 三道가 없고 목 밑으로 裸部가 들어나 있다. 衣紋은 通肩衣로 兩臂에 걸쳐져 흘러내렸는데 兩袖部가 兩側으로 길게 垂下되었다. 그리고 또 목결이처럼 圓形을 그리고 다시 앞가슴에서 圓弧를 그리며 주름지며 兩脚部에 이르러서는 다시 縱으로 주름지다가 다시 橫으로 變格하여 주름지고 그 밑으로 裙衣의 자락이 발목을 덮고 있다. 곧 寧越 九來里 發見 金銅如來立像②의 衣紋에 恰似하다. 兩手는 通印인 與願施無畏로 典型的인 如來像의 手印을 하였다. 兩足은 裸足으로 五指를 모아 臺座에 整然하게 놓아 直立姿勢를 取하였다.

側面과 後面은 紋樣이 省略되었다. 그리고 後面은 凹部로 홈이 패이고 下部에 突起部가 있어 元來는 光背가 俱存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臺座는 紋樣이 없이 八角形바탕에 圓帶를 둘러 二層級을 形成한 받침에 다시 半圓球를 놓고 그 위에 圓形仰皿을 놓아 立像을 받고 있다. 佛像을 實測하였는바 그 數値는 다음과 같다.

- 總高 七·五 cm
- 佛身 ① 佛身高 五·五 cm ② 肩部幅 一·五 cm
- ③ 頭部高 二·〇 cm
- 臺座 ① 臺座底直徑 三·三 cm ② 臺座高 二·〇 cm ③ 上臺直徑 一·七 cm

註 ① 秦弘燮·「金銅如來立像과 菩薩立像」(考古美術 第四卷 第五號)
 ② 秦弘燮·「寧越發見 金銅如來立像」(考古美術 第三卷 十號)

至正元年銘 玉禪燈

文 明 大

高麗以前的 燈이 극히 적고 그 가운데도 年代가 확실한 在銘燈은 거

의 볼 수 없다. 다행하게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때까지 알려진 이 계통의 在銘玉燈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 방면 연구의 막중한 자료라 하겠다.

乳白色의 正結한 색깔은 우아한 멋과 고상한 정취가 숨숨히 배어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어두운 山寺의 法堂처럼에서 寂照하게 밝히고 있을 때의 이 玉燈을 쳐다 본다면 정말 투명하고 은은한 禪味와 風趣를 아낌 없이 맛 볼 것이다. 적은 주발만한 아담한 玉燈은 口緣部에 면해서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는 늦쇠의 고리가 곡선을 그리면서 멋있게 올라간다 — 建築物의 「아치」처럼 —

銘文은 고리와 고리를 이어서 一周의 橫書로 陰刻하였는데 거의 마멸되어 정성드러 읽지 않으면 관독하기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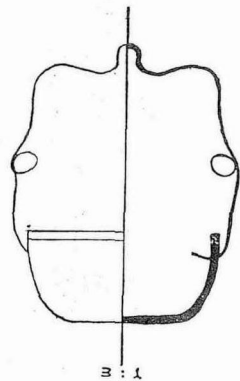
至正元年辛巳四月日 禪源寺佛前于 施主

三韓國大夫人李氏 (字徑 一·〇—一·五 cm)

至正元年是 高麗 忠惠王 二年 A. D. 一三四一年이며 바로 辛巳年이다.

禪源寺는 江華島 禪源面 지리산에 있었던 절이라 생각된다. 禪源寺란 이름을 가진 寺院은 둘 뿐인데 하나는 미미한 小刹이라 이와 같은 在銘玉燈을 가진만한 寺刹은 아니다. 江華島 禪源寺는 고려 高宗 때 崔瑀가 創建하였다고 하며 忠烈王은 契丹의 침입을 피하여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한다. 그때 先代의 實錄들을 옮겨 두었다. ①

강력한 집권자가 창건하였고 王이 피난하였다는 사실은 이 절이 大刹이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며 「至正元年」이란 銘年은 崔瑀 때 보다 一세기나 後이지만 당시 最大의 寺刹에 이만한 品位있는 玉燈을 달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禪源」銘이 있는 銀入絲佛器가 이미



발견되어 江華島의 禪源寺란 것이 밝혀진 것은 例도 있다. ② 이 寺刹은 東國輿地勝覽 ③ 에 벌써 廢寺로 記錄되어 있고 그때 벌써 掌苑署의 果苑으로 되었다고 하였으니 李朝初期에 廢寺되었을 것이다.

「佛前于」라 한 것을 보면 처마에 매달던 것이 아니라 佛像앞에 달았던 것이라 생각된다.

「施主 三韓國大夫人 李氏」는 恭愍王 및 禑王 때의 判司事를 지냈던 鐵城府院君 李琳의 母 李氏라 생각된다. 琳의 딸이 禑王의 謹妃가 되어 琳의 母도 三韓國大夫人이 되었던 것이다. ④ 高麗代를 通하여 三韓國大夫人으로 책봉된 이는 李氏밖에 보이지 않고 姓氏나 年代도 꼭 합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琳好佛」이라 하여 그의 집안 모두가 佛敎를 깊이 믿었다고 한 것을 보면 李氏가 禪源寺에 玉燈을 施主했으니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다. ⑤

實測值..高七cm 口徑一四·八cm

註

- ① 傳燈本末寺誌 江華各寺 古代廢寺條
- ② 黃壽永·「在銘銀入絲佛器」(考古美術一卷一號)
- ③ 東國輿地勝覽 江華 古跡條
- ④ 高麗史 列傳 卷二十九
- ⑤ 이 禪燈은 忠淸北道 어느 寺刹에 傳來되어 오다가 金義正氏에 의 하여 一九六七年 東國大博物館에 기증된 것이다.

南原 大福庵과 佳仁寺址의 石佛

金 鍾 太

一九六七年十一月十日에 南原 大福庵을 一次踏查하여 石燈下臺石 塔材 鐵佛 等を 調査하고 그後今年一月三日에 新羅五岳 智異山 第四次踏查時에 「崇禎八年 全羅道 泰仁縣 東面 淸龍山?原寺 大鍾」銘을 調査하고 다음一月三十一日 住持 鄭智元 스님의 好意로 石造如來像二 軀를 調査하였으며 오는 길에 大福庵 東一km 지점 佳仁寺址에서 石造如

來像 一軀를 더 發見하였다.

大福庵은 本來 大谷寺로 부른 것 같다. 南原龍城誌의 己廢現存寺刹沿 革大谷寺條에(南原龍城誌 佛宇 卷之四)「寺在府北三里 今大福庵 只有鐵 佛唐傳宗景福二年 新羅眞聖女王六年 癸丑初朔」으로 記錄되어 있고 佛敎 辭典에「西紀 八九一年 新羅 眞興王 七年」이라 하였고 大福庵 入口沿 革에는 八九三年 新羅 眞聖女王 七年 道詵國師의 創建으로 되어 있는데 이 記錄은 景福二年 眞聖女王 七年 癸丑과 일치된다. 여하간 大福庵이 新羅末 寺刹임은 現存하는 石佛 鐵佛 塔材 石燈下臺石 等으로 알 수 있다. 大福庵은 東國輿地勝覽에 記錄이 丁卯再亂時에 南原市內의 寺刹들 이 불타다는 記錄으로 보아(南原邑誌六 우리고장年表 參照) 宣祖를 넘 어서까지 存在했는지는 疑問이다. 大福庵이라는 이유는 南原 富家 姜大 福이 李朝 肅宗 때에 重創하였기 때문이라는 바 現存建物은 一九一四年 에 세워진 것이다. (住持傳說談話)

佳仁寺는 大福寺 東一km 되는 곳 現在 南原邑 鄉校里 龍井部落이 그 遺址인데 龍城誌에「寺在大谷寺傍 只有石佛今廢」라고 記錄되어 寺址를 밝히고 있는데 殘存遺物로 보아 羅末麗初임은 틀림 없다.

(1) 大福庵

① 石佛坐像(I)

大福庵 後一〇〇
m 自然的인 절벽 밑
에 直徑 三·五m 幅
一·五四m의 경사진
반석 위에 自然石座
臺를 놓고 南向安置
하였는데 本來는 蓮
花石 座臺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結
跏趺坐하였고 素髮
의 頭頂에 肉髻가 있

